

평화의 문 열리는 남북, 민간교류도 활짝 열리나

광주시민단체 '기차타고 신의주 가즈아' 참가자 모집
각계 518명 평화통일 선언·내년 수영선수권 북한 초청도
시교육청 수학여행 제안...김원중 北어린이 돕기 공연 준비

남북정상회담 D-1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유로운 남북 교류가 이뤄질지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와 전남 종교계, 지자체 등은 남북 문화교류 사업에 착수했고 청소년들은 북한 수학여행을 고대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 '기차타고 목포-신의주 가즈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남북정상회담을 응원하고 평화와 교류 염원하는 '기차타고 신의주 가즈아' 프로젝트를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남북교류가 성사되면 국도 1호선 최남단 목포에서 광주~익산~세종~천안~서울~판문점~개성~해주~사리원~평양~정주를 거쳐 최북단 신의주까지 자동차와 기차로 평화 통일여행(총 939km)을 한다는 내용이다. 1000명을 목표로 지난 24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참가자는 25일 현재 150여명에 이를 만큼 호응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용집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장은 "신의주는 학생독립운동이 전개된 곳으로 광주와 닮은 점이 많아 통일이 된다면 양 도시간 교류를 추진하지는 취지에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광주본부)는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염원 광주 각계 518명 평화통일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광주 5월 정신의 완성은 평화



가수 김원중

통일"이라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지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철거, 남북 교류협력 즉각 재개, 남북 노동자 대표자 회의, 금강산 남북 농민 추수한마당, 남북청소년 통일열차 수학여행, 남북 대학생 상봉모임·북한 역사문화유적 답사 등을 제안했다. 또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공연단 초청을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도 "내년 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청소년대표단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북한



'6·15 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회원들이 25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가언을 쓴 채 평화협정 체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수학여행 등 남북교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청와대와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보냈다. 광주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수학여행 광주시민추진위원회'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청소년들이 통일열차를 타고 북한의 청소년을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노래 '바위섬'의 가수 김원중씨도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올해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공연을 통해 모은 후원금을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의 '북녀어린이영양방공정사업본부'에 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1

억1000여만원을 기부했으며 올해도 다음달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주 월요일마다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매년 서산대제 춘계제향을 진행하고 있는 해남 대흥사는 서산대사가 입적한 북한 보현사가 올 가을 여는 춘계제향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6월 중 대흥사 월유 주지 스님이 북한을 방문, 구체적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전남도도 자체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확보한 남북교류 기금 44억원을 활용해 2018 광주비

엔날레·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초청, 양궁 등 스포츠 교류, 북한 신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북한 문화 특별전'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교류기금 34억원을 조성한 전남도는 올해 남한 땅끝인 전남에서 생산한 미역과 쌀을 북한 땅끝인 함경북도에 보내는 '땅끝 협력' 남북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함경북도 산도·영유아, 불우 아동 지원, 평양 발효공 빵 제2공장 설립 추진, 남북 여자 배구 교류전 등을 담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초·중·고생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로 본다

학교장 자율로 TV 시청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로 시청한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당일인 27일 관내 각급 학교들은 학교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TV로 시청하게 된다. 또한 2018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www.koreasummit.kr)에 올라온 자료들을 활용해 계기교육도 실시한다.

이후 학생들은 이날 시청한 정상회담 장면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실천 가능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릴레이 글

남기기, 나의 평화지수 알아보기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3일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사에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현수막에는 '2018 남북 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장면을 통해 살아있는 통일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의 경우 도교육청 차원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장 판단 아래 남북정상회담을 TV 생중계로 보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306억 배상 확정

법원 "8810명에 지급" 판결 대책위, 추가 소송 접수키로

법원이 13년 만에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정부가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 9673명에게 208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재검정을 거쳐 8810명에게 피해배상금 237억원과

2012년 5월까지 지연이자 69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012년 6월부터 확정일까지 연 5%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비행장 이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2004년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소송인단 1만3938명을 모집해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1심에서 법원은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도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정도)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936명에게 총 2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항소했고 2심 재판

부는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9673명에게 20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또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소음 피해 기준을 80웨클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광주 군 공항은 도심 공항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많아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26일 오전 10시 광주공항 제1 전투비행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촉구하고 소음피해 소송 추가 접수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섬마을 5살 여아 성추행 피해 수사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5살 여아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목포경찰청은 25일 "같은 마을에 사는 B(5)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분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양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이 거주하는 숙소로 B양을 유인해 같은 방방으로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섬마을 주변 CCTV를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해남 80대 노인 이웃과 다투다 숨겨

이웃과 다투다 숨겨

해남에서 80대 노인이 이웃과 다투다 숨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5분께 해남군 계곡면 A(여·77)씨 집에서 이웃인 B(88)씨가 몸싸움 도중 쓰러졌다. 쓰러진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이날 A씨의 집을 찾아가 다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와 지인 C(76)씨가 집에 함께 있었고, 서로 뒤엎겨 주먹다짐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 사람 모두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찾아와 먼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아내 폭행 가수 김홍국 입건



○...최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논란이 된 가수 김홍국(59)씨가 아내를 때린 혐의로 또다시 경찰서행.

○...25일 서울 서초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2시에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김홍국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씨는 앞서 지난달 30대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912.50㎡(276평) 건물: 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1,349㎡(408평) 건물: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91.03㎡(57.7평) 건물: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7,662.4㎡(2,317.8평) 건물: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증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등)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136.20㎡(41.2평) 건물: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3,104.6㎡(939.1평) 건물: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2,769㎡(837.6평) 건물: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축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619.62㎡(187.4평) 건물: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514.40㎡(155.6평) 건물: 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2,756㎡(833.6평) 건물: 3,568.32㎡(1079.4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2,319㎡(701.4평) 건물: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7339.4㎡(2220.2평) 건물: 4153.34㎡(1256.4평) 감정가: 6,489,967,980원 최저가: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4200㎡(1270.5평) 건물: 401.96㎡(121.6평) 감정가: 473,683,800원 최저가: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1149.74㎡(347.8평) 감정가: 675,787,160원 최저가: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15590.5㎡(4716.1평) 감정가: 1,839,679,000원 최저가: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